

네 이웃 (누가복음 10:25-37)

오늘 제목이 네 이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이다.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르다. 인생도 다르고 전체가 다 달라진다. 그런데 그 기도가 확실히 다르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보좌의 권세가 그 기도 안에 있게 되어 있다. 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이렇게 나타나면 복음이 보좌의 권세이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믿기 바란다. 유월절 그날 저녁에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해놓았다.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깨버렸다. 그리고 사단 나라의 신들도 다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냥 나오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해 놓았고 출애굽기 15장 35-36절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 때 이 언약의 피가 복음이고 그것을 바르는 것이 기도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 피를 우리 인생에 계속 바르면 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과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언약의 피를 인생에 계속 발라야 한다. 매일 고백하고 언약을 잡으면 피를 바르는 것이다.

시편 1-2편에 보면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해 진다는 것이다. 이 때 여호와와 율법이 복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호수아 1장 1-9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다.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고 약속을 한 것이다. 이 율법이 네 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네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든다고 하셨다. 이 때 율법이 복음이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마태복음 6:33절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계속 구하라고 하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사실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한 것이다. 열심히 잘했어도 사실 방황하고 있던 것이다.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뒤편 할지 몰랐으니 방황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알고만 있지 그 기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들은 4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온다. 언약의 피, 이 복음을 내 인생에 계속 바르는 것이다.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이다. 복음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에서 그날 저녁에 바로 해방이 된다.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박살 내는 것이다. 우리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를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주셨다.

그렇다면 답이 무엇인가? 복음이 근본답이고 그것을 누리는 근본기도가 실질적인 답인 것이다. 이것이 복음기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기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기도이다. 복음은 아는데 기도가 틀려서 여전히 방황한다면 기도를 고쳐야 한다.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1. 강도 만난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27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마음과 힘을 다하고 니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율법사가 대답한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와 율법사의 이해는 굉장히 달랐다.

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 율법사가 자기가 조금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정통으로 질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자의 예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왔다고 메시지를 하신 것이다. 결론은 내가 너희의 이웃이라는 말이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내가 너를 건질자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내가 니 이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니가 강도 만난 자의 저주에서 나올거야 라는 것이다. 조금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약간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성경공부시간이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설교시간에는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예화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 강도 만났잖아. 모든 인간이 강도 만나서 너무 많이 맞아서 죽게 되었잖아.. 있는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겼잖아. 안그러나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스스로 나올 힘도 없잖아' '제 사장이 너를 거기서 건질거냐? 레위인이 건질거냐? 그들은 다 피해갔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인이 살렸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너 나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와서 영생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 그러나 너 나 아니면 거기서 못 나와. 너 강도 만났잖아. 너는 사실 사단에게 죽도록 매 맞았어. 나 아니면 너 답없어. 내가 이 답을 위하여 온 것이야' 이것이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가 대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이 필요할 만큼 강도를 만났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정도면 말할 것도 없고 옷도 다 빼앗겼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도 강도같은 사단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못 빠져 나온다. 인간의 모든 저주는 사단에게서 나왔다. 분명한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다. 사단의 말을 따라갔으니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 때 원죄 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단을 안 따라 갈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이유가 없는 문제는 없다. 영적인 이유가 근본이 아닌 문제는 이 땅에 없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된다. 뭔가 다른 것으로 될것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문제해결이 시작된다. 나 뿐이야. 내가 네 이웃이야. 니가 스스로 어디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 니가 레위인에게서 얻을거야? 율법사에게서 얻을거야? 어디서 얻을거야? 제사장? 다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율법사와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언약잡기 바란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것이 없다. 눈 뜨고 보면 깨닫게 된다.

2. 내가 너의 이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내가 너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웃이고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 사단 안 따라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이다.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강도만난 인생을 저주에서 누가 건지는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강도만난 내 인생을 예수님이 건지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첫째는 누림이고

둘째는 기다림이고 셋째는 도전이다. 도전하면 큰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과 누림이 없으면 그리스도 역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야 한다. 이것이 더 정답이다.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확신이 들면 그 때 도전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늘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100점은 아니다. 그런데 천지도 모르고 계속 도전만 하면 그것도 안타깝다. 그러면 언제 도전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 생각이 날 때, 말을 들을 때는 맞는데 해보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행착오 생긴다. 어떻게 이 병을 고치나? 인간은 이렇게 되기 너무 쉽다. 왜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가? 내 생각보다도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모자라서 그렇다.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내 생각을 비교하면 어떻게 많은가? 고치면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당연히 도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도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성취된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실패하면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한다. 성공해서 내 혼자 잘먹고 잘사는게 아니라 증인되기 원하신다. 내가 정말 증인되기 원하는 생각 있으면 큰 성공해도 양심의 가책 안 받는다. 증인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큰 성공, 큰 돈을 가지면 양심적인 사람은 계속 못한다. 질문이 계속 올라온다. 이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꽃혀야 한다. 이 절대 언약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한다. 그것을 누리고 고백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야 흑암세력이 무너진다.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잡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방해하는 것은 다 꺾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있냐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인생은 못 말린다. 이것이 되기 전에 근본 언약을 잡아라라는 말이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율법은 근본 언약 아닌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본 언약이다. 그러면 아무리 사막지역이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무얼 걱정하겠는가? 너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너를 그 저주에서 건져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려고 네 이웃으로 왔어.

35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 값으리라고 하셨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때에 이 모든 것을 값으시겠다는 것이다.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바뀌는 것이다. 인간의 축복은 이 때 뿐이다. 이 한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70, 80, 100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의미없다. 구원을 받고도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꽃히면 무언을 하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내려오는 의미있는 일이 된다. 그리 되어야 한다.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무슨 걱정이나? 하나님 메시지 아닌가? 너를 고치라는 것이다. 왜 너는 자꾸 나에게 문제를 이야기 하나? 나는 답을 찾잖아. 언약을 잡아라. 왜 다른데서 자꾸 문제를 이야기 하나? 우리 생각 해보고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거 안 바뀌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제목 다 던지고 이거만 24시간 365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왜 언약이 없습니까? 왜 맨날 문제 문제, 이게 뭐니까? 언약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인데, 그 답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이거 안주면 내일 아침부터 밥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금식은 괜찮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값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도움을 주고 내가 손해보는 자세 없이는 전도자가 안된다. 이것은 전도의 기본 자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하고 싶은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행위의 말로써 끝났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니 이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이 메시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길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나를 믿으라 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율법사는 이런 것을 이해할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안되었었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자세도 없었다. 참 복음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왜 왔는가?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시험하려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게는 말해봐야 안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아니까 말씀 안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수 있는 행위의 말씀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종교이기 때문에 가서 해라 하면 아주 은혜가 된다. 깊은 복음 이야기를 생략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뒷 이야기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이웃이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이웃이다. 알아야 한다. 내가 너의 영원하고 완전한 이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내게 너의 영생이 있어.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은 누구나 강도 만났다. 원죄의 사단에 강도를 만났다. 영원한 저주에 빠졌다.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웃도 빼앗겼다. 원죄 이전의 우리와 비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이렇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시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은 항상 시각이 원죄 전에 걸려 있다. 우리는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0년전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기준이 주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보이니 잘 산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어도 옆집이나 뒷집도 그러니 별거 없지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 저래 해서 결국은 근본 이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속아 버린 것이다. 근본 이유를 모르니 그리스도가 들어오는가? 답이 안 들어오는데, 이래 저래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속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예화를 들었는데 강도에게 맞아 죽게 되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래 말해도 예수님하고 감각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원죄 이전을 아는가? 사람중에는 한 사람 있다. 아담. 원죄 이전과 원죄 이후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썼을 때 그것을 죽으라고 잡은 것이다. 너무나 확실히 알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것이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왜 모형인가? 죄를 지어서 원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죄 안 본다. 언약만 보신다. 아담이 잡은 언약 보고, 그 생각 사상 보고, 그렇지. 오실자의 모형이야. 예수님은 언약 덩어리 아닌가? 모든 말씀을 다 보면 항상 포인트가 원죄 이전과 이후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안 사는 것은 무엇인가? 병든 것이다. 속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강도 만난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강도 만난 상황 속에서 다시 전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강도를 박살 내 버리는 것이다. 거의 죽었다 완전 죽지는 않았다. 지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언약을 잡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하나님의 소원, 그 언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이 전부다 이렇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까지 돌아올 때 비용들면 다 줄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라고 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댈게.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언약의 피를 발라야 한다. 그 복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 나도 묵상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할 사람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 하나로도 묵상 하나가 잘 안된다. 사단이 얼마나 물고 넘어지는지 모른다. 그리스도가 깊이 고백이 되어야 내 속에 내면적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야 내 누림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진다. 램넛트들은 이 나이에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 세월이 10년 20년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누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기도이다. 언약을 누리는 언약기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이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근본이 안되면 그 이후에는 못 올라간다. 올라갔다가 반드시 다시 내려오고 새출발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은 인생 되기 바란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않았는가? 이것 저것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언약, 복음 누리면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문제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개로 모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쓰라, 그 말이다. 이번주간에 이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의 이웃을 진짜 만나서 여기에 답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